

Cover story | 2018 류현진, 두려울 게 없다

‘팔색조’ 변신한 류현진, 15승·2점대 방어율 가슴뛰는 도전

(7가지 구종 장척)

(메이저리그 에이스의 상징)

3연승·방어율 1.99 NL 정상급 활약
신무기 커터·커브 완성 패턴변화 성공
데뷔후 최고 페이스...새 이정표 야심

LA 다저스 류현진(31)은 팀 선발전의 핵심이다. 애초 5선발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26일(한국시간) 현재 4경기에 선발 등판해 3승, 방어율 1.99(22.2이닝 5자책점)의 성적을 거두며 순항하고 있다.

특히 25일까지 규정이닝을 채운 내셔널리그(NL) 투수 52명 가운데 1점대 이하의 방어율을 기록 중인 투수는 류현진을 포함해 조니 쿠에토(0.35·샌프란시스코)와 알린 가르시아(1.00·마이애미), 카를로스 마르티네스(1.42·세인트루이스), 맥스 슈어저(1.62·워싱턴), 제이크 아리아에타(1.82·필라델피아), 패트릭 코빈(1.89·애리조나) 등 7명이 전부다. 나머지 6명 가운데 두 차례 구원등판에 나선 것만 제외하면 5명은 리그 정상급 선발 자원이다.

자연스럽게 류현진이 에이스의 상징인 15승과 2점대 방어율로 시즌을 마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승수를 쌓는 속도가 메이저리그 데뷔 후 가장 빠르다. 류현진은 빅리그 데뷔

연도	2013	2014	2018
경기	30	26	4
승	14	14	3
패	8	7	0
방어율	3.00	3.38	1.99
이닝	192	152	22.2
삼진	154	139	27
볼넷	49	29	9
피홈런	15	8	1
WHIP	1.203	1.191	0.882

※ 2018시즌은 26일(한국시간) 현재

첫해인 2013시즌 6경기, 2014시즌 5경기 만에 3승째를 따낸 바 있다. 4경기를 소화한 시점의 방어율은 2013시즌 4.01, 2014시즌 2.57이었고, 두 시즌 연속 14승을 기록했다. 올 시즌 초반의 흐름은 역대 최고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다.

패턴 변화에 성공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류현진은 한창 위력을 떨친 2013~2014시즌 직구(포심 패스트볼)와 체인지업, 두 가지 구종을 주로 활용했다. 이때는 어깨수술을 받기 전으로, 직구 최고구속이 약 154.5km(95마일)까지 나올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2014년 5월 22일 뉴욕 메츠 원정에선 직구 평균구속이 약 147km

(91.5마일)까지 나왔다. 그러다 보니 직구와 같은 팔 스윙으로 타이밍을 뺏은 서클체인지업만 효과적으로 활용해도 충분히 좋은 투구를 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어깨수술 후 직구의 구속이 하락했다. 4년 전 평균구속과 현재 최고구속의 차이가 적지 않다. 직구를 주무기로 활용하는 류현진으로서 강력한 무기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다. 그러나 류현진은 끊임없이 고민하며 생존법을 연구했고, ‘팔색조’라는 정답을 찾았다. 슬라이더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시속 140km대 후반의 직구와 체인지업, 컷패스트볼(커터), 커브, 투심 등 구종의 완성도를 높였다. 2018시즌을 앞두고는 커브 회전수를 늘리는 작업에 몰두했다.

류현진은 KBO리그(한화) 시절 세 차례 15승·2점대 방어율을 동시 달성했다. 데뷔 첫해인 2006시즌 18승(6패), 방어율 2.23, 2007시즌 17승(7패), 방어율 2.94를 기록했고, 2010시즌 16승(4패), 방어율 1.82의 성적을 거뒀다. 메이저리그에서 2013시즌 3.00, 2014시즌 3.38의 방어율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2018시즌 15승과 2점대 방어율 달성에 성공한다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셈이라 그 의미가 크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야구선수에게 뛰어난 기록은 곧 큰 자부심이다. LA 다저스 류현진은 개막 초 아슬아슬하게 팀의 마지막 제5선발로 로테이션에 합류했다. 갑작스러운 등판날짜 변경도 감수해야 했지만 뛰어난 투구를 이어가며 팀 내 위상도 밝은 미소처럼 드러내고 있다. 사진 | AP뉴시스

건강한 류현진, ‘1억 달러짜리 FA 잭팟’ 꿈이 아니다

(1080억원)

15승팬 카이클과 충분히 경쟁 가능
로버츠 감독 “FA가 동기부여 될 것”

류현진(LA 다저스)의 올 시즌 초 활약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무기’ 커터의 활용부터 결론으로 누리는 심리적 안정까지 근거는 다양하다. ‘FA로이드’도 그중 하나다.

KBO리그 8시즌 통산 98승52패 방어율 2.80을 기록한 류현진은 2013시즌을 앞두고,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LA 다저스와 계약했다. 다저스는 당시 2573만7737달러(33센트)를 써서 류현진과 협상권을 따냈고, ‘5+1년간’ 총액 3600만 달러를 류현진에게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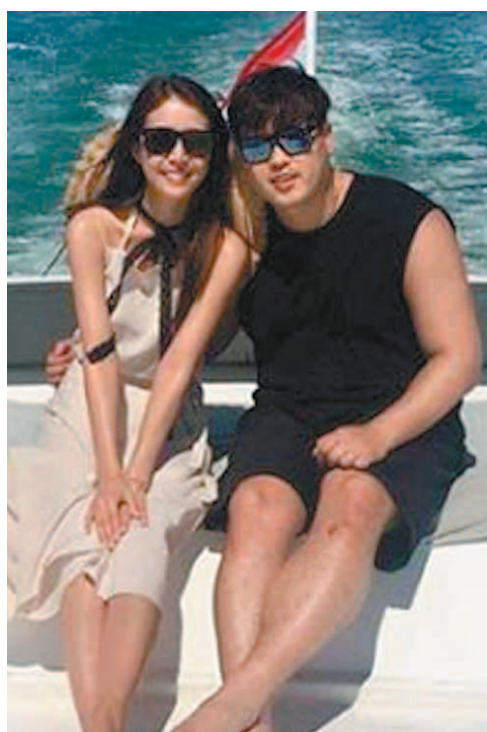
첫 두 시즌 간 내리 14승을 거뒀으나 이후 2년은 수술과 재활에 발목 잡혔다. 류현진은 지난해 복귀해 25경기에 등판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거기에 올 시즌 초 활약이 더해지며 ‘프리 에이전트(FA) 대박’을 노려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송재우 MBC스포츠+ 해설위원은 25일 “올 시즌을 앞두고 류현진이 유달리 자기관리에 철저했다. 결혼을 앞둔 시기가 ‘웨딩사진 잘 나오게 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FA에 대한 동기부

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그의 각오를 대신 전했다. 생애 첫 FA를 앞둔 그에게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도 시즌 전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계약을 단 한 번 밖에 하지 않은 선수다. 이는 본인에게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상황도 살펴야 한다. 올 시즌 후 ‘우주 최강’ 클레이튼 커쇼(다저스)와 데이비드 프라이스(보스턴)가 올트아웃 자격을 얻는다. 이들은 방정히 말해 류현진과 체급 자체가 다른 매물이다. 류현진이 실질적으로 경쟁할 좌완 FA 후보군은 델러스 카이클(휴스턴) 정도뿐이다. 카이클은 7시즌 통산 65승55패 방어율 3.63의 특급 좌완이다. 2015시즌에는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까지 받았다. 송 위원은 “류현진이 지금 모습이라면 카이클에 밀릴 이유가 없다. 현재 페이스가 다소 떨어져도 15승, 방어율 3점대를 달성한다면 잭팟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만 32세부터 FA 계약이 발표되기에 6년 이상 장기 계약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5년 총액 1억 달러의 잭팟도 노려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부상으로 6년 중 2년을 날렸다는 걸 살펴봤을 때, 고무적일 수밖에 없다. 류현진 앞에 꽃길 기다리고 있다. 최익래 기자 in71@donga.com



류현진(오른쪽)은 1월 배지전 전 아내문서와 결혼식을 올리고 새 가정을 꾸렸다. 부상, 수술과 재활, 부진 등 어려운 시간을 뒤로하고 실뿔한 뒷바라지 속 부신 호투를 이어가고 있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닭한마리착한칼국수”에서 성공창업의 길을 꼭 열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회사, 창업의 성공을 책임지고 이끄는 회사
철저한 관리지원으로 평가받는 회사.
한 점포의 개설보다는 한 점포의 창업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성공창업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4월
창업혜택
가맹비
면제

운영자금은 점심매출로
순수이윤은 저녁매출로 **대박!**

◆ 업종변경 창업 ◆ **980만원**

‘닭한마리착한칼국수’만의 장점

매장에서 힘들게 육수 및 소스를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히 상차림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사에서 육수와 특제소스를 공급하여 쉽게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전문 주방장이 필요 없습니다.
소액창업으로 ‘대박 창업’을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창업성공포인트!

빠른회전과 높은 마진율을 자랑합니다

얼리지 않은 국내산 생닭만을 사용합니다

조리가 간편하여 전문주방장이 필요없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영영만점 메뉴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진한 육수로 맛이 담백합니다

※ 전국지사모집 ※

창업문의 : 1600-9240

빠른 문의 : 010-3559-1586

NAVER 닭한마리착한칼국수